

해외여행 행태와 에이즈 예방

안중주 / 한겨레신문 사회부 차장

어느 에이즈 절도범의 변명

4월 25일자 한 석간신문에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다 붙잡힌 어느 에이즈 환자의 눈물겨운 사연이 대문짝하게 실려있었다. 현금 89만원을 훔치다 붙잡힌 34살의 이 청년은 지난해 6월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복역하던중 신체검사에서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그해 10월 출소해 가죽공장에 취직해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받은 돈으로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고 약을 타먹으며 생활했으나 최근 이 회사가 불경기 때문에 월급조차 주지 않아 부득이 절도를

했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다.

이 청년의 사례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의 에이즈 감염 경위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회사에 다니다 88년 독립해 회사를 차린뒤 홍콩, 일본 등지에서 종종 환락가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때 그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청년과 비슷하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정확하게 몇명인지는 모르지만 국내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환락가를 자주 드나들다 에이즈에 감염된 외향선원과 회사원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때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에이즈는 성병이다

에이즈는 성병이라고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과거 해외여행자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매독 등의 성병이라면 이제는 에이즈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에이즈는 성병이기 때문에 이성 또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 등 방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들 남성들 사이에는 외국나가는 사람에게 꼭 한국의 깃발을 외국여성에게 꽂아 놓고 오라고 덕담한다. 이제 이 덕담은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나아가 그 사람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

‘얼마 나에게’, ‘내가 상대한 사람은 매춘 여성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의 눈에 보일 리도 없지만 누가 에이즈 감염자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요조숙녀도 에이즈 감염자일 수 있다. 특히 동성연애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체류 때 그 나라의 동성연애자와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할 때는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과거 우리들은 60년대와 70년대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 현지처를 두거나 기생관광을 즐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일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그 돈으로 한국에 와 젊은 아가씨의 몸을 산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제 한국도 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서게 됐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방을 둘러메고 홍콩, 방콕, 미국 등지로 나간다. 사업, 유학, 관광 등 갖은 이유로 남녀노소가 세계 곳곳을 다닌다. 젊은이들도 배낭여행을 즐기고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점차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에이즈에 걸려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배낭여행 청소년을 주목하라

특히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학생 또는 젊은 청소년이다. 이들은 특히 성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이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많은 상태에서 선진국

의 성개방 문화를 피부로 느껴면서 오랜 기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됐더라도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국내에 돌아와서도 여러 사람과 성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보면 에이즈 감염 및 전파 위험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외항선원의 처지와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오랫동안 금욕생활을 해야 하고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외국에서 성적으로 왕성한 외항선원들이 에이즈에 많이 감염돼있지 않은가.

어글리 코리안의 빛나간 해외 여행문화

우리들의 빛나간 외국여행 행태는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정력에 좋다는 과장된 소문을 듣고 뽕탕이나 곰 쓸개 등을 먹기 위해 갔을 사람들. ‘현대판 볼로초’라는 근거없는 이름으로 소문나 있는 ‘DHEA’ 호르몬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미국 슈퍼마켓에서 싹쓸이를 하는 사람들. 몸에 좋다고 하면 티벳의 석청까지도 마구 채취해오는 사람들.

또한 태국여행 가서 맞사지나 태극기(?)를 꽂지않고 오면 ‘팔불출’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리고 많은 남성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요즘은 에이즈

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깊이 깨닫고 있어 맨정신에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지는 사례가 없겠지만 아직도 에이즈가 상대적으로 덜 유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예를 들면 동유럽)을 다니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해외여행객들이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 지금보다는 덜 인식하고 있을 때여서 이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제법 있을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해외여행자들의 사연

해외여행 때 가진 성관계로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 염려돼 에이즈상담기관에 상담을 해오는 사례도 종종 있다.

사례 1

35살 남자 회사원. 태국에 사업차 갔다가 호텔에서 현지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성관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여성의 성기에서 출혈이 있어 혹시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지않느냐는 걱정이 든다. 이 여성은 매춘으로 돈벌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여성으로 20살도 안되는 앳된 나이였다.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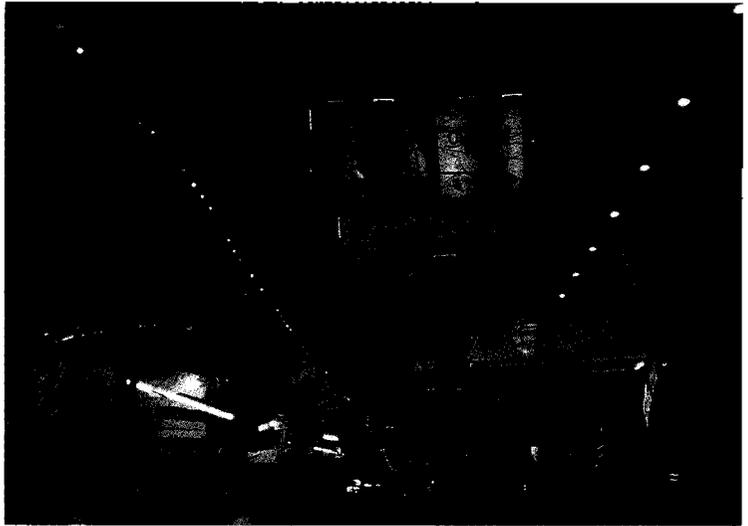
52살 자유업. 태국으로 단체관광을 갔다가 단체로 맞사지업소에 들어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콘돔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아내와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

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편으로 유럽쪽은 자주 가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곤했는데 동남아쪽은 10년 넘게 안가다 모처럼 가서 성관계를 한 탓으로 걱정이 된다.

사례 3

45살 외항선원. 아프리카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 근무하다가 모로코에서 백인 여성과 몇달 동안 동거를 하다 감염됐다. 동거기간 동안 대부분 콘돔을 사용했지만 가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감염된 것 같다. 잠자리에서 정열적인 스페인계 여성은 그 이후 가끔 전화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빙산은 자신의 거대한 몸체를 물속에 숨기고 몸의 극히 일부분만을 물위로 드러내놓듯이 해외여행 또는 체류때 무분별한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려 국내에 들어와 강제검진 또는 우연한 기회에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난 사람은 진짜 감염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와있는 에이즈 감염자 수가 국내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참수치가 아니듯이 감염자별 개인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국외성



태국의 유흥가로 남자들이 이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마사지'라는 말을 하여 쫓아다니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진다.

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밝힌 수치도 참수치는 아니다.

국외성접촉 에이즈 감염자수는 빙산의 일각

복지부의 공식통계를 보면 96년 말 현재 발견된 6백 23명의 감염자 가운데 1백 89명이 국외에서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돼 있다. 이들 가운데 정확하게 몇명이 이성접촉으로 감염됐고 몇명이 동성접촉으로 감염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외 이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동성연애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

다. 또 대개 감염자들은 외국에서 한두차례 성접촉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도 재수없게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은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졌거나 실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극히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동성연애로 걸려들어 오는 경우도 꽤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현황을 보면 외항선원에 대한 강제검진이 이루어진 88년부터 감염자가 상당수 발견되기 시작해 90년 가장 많은 29명으로 집

1. 국외성접촉 에이즈 감염자 현황

[보건복지부제공]

단위 : 명

구 분	85~88	89	90	91	92	93	94	95	96	계
전체감염자	36	37	54	42	76	78	90	108	102	623
국외성접촉	15	21	29	19	23	24	25	25	8	189

계됐고 이후 96년까지 25명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는 8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아직 국외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전체 감염자 가운데 국외성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이 3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제 에이즈 감염은 국내나 국외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국외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처방도 당연히 국내와 똑같이 비중과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처방전이 에이즈 확산을 막는다

가장 좋은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올바른 성지식과 성문화, 성행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둘째, 대학생 또는 사회인들을 위해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매스

컴을 통해 꾸준히 올바른 성지식과 성문화를 전달해 에이즈는 물론이고 성병, 그리고 퇴폐 성문화를 바로잡도록 하는 일이다.

셋째, 해외여행 관련 잡지와 비행기 기내의 잡지 등에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싣고 홍보 또는 예방 pamphlet을 비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해외여행가이드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에이즈 인식도 조사

대한보건협회(1989년)

단위 : 명

설문항목	해외여행 및 근무 경험		
	유경험 (251명)	무경험 (4,611명)	
1. 에이즈 양성자와 성행위때 전파가능하다.	74.5	56.1	
2. 에이즈 지식아 없거나 거의 없다.	8.0	16.0	
3. 모기나 기타 곤충에 물려 걸릴 수 있다.	51.6	44.9	
4. 에이즈 감염자와 학교를 같이 다니면 걸린다.	18.0	14.4	
5. 에이즈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감염된다.	48.0	51.7	
6. 공중변소의 변기를 같이 쓰면 걸린다.	47.6	51.7	
7. 에이즈 감염자와 악수하면 걸린다.	15.2	18.6	
8. 에이즈 환자와 같이 일하면 걸린다.	25.1	28.6	
9. 에이즈 환자 집 근처나 병원근처에서 걸린다.	16.8	20.5	
10. 에이즈 예방주사가 있다.	13.8	11.7	
11. 에이즈 감염자도 걸보기에는 건강해 보인다.	46.8	40.0	
12. 에이즈 감염자가 성관계로 전파시킨다.	31.7	86.7	
13. 에이즈 감염자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25.1	23.3	
14.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	① 높다	1.2	1.5
	② 중간	8.0	5.3
	③ 낮다	28.7	19.5
	④ 걸리지 않는다	41.8	44.7
	⑤ 모르겠다	20.3	29.1
15.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 할때 콘돔사용 여부	① 성관계없음	59.8	65.6
	② 항상 사용	6.0	2.8
	③ 가끔 사용	9.2	5.3
	④ 사용 안함	13.3	9.8
16. 한국방문 외국인은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86.1	79.0	
17. 장기체류 한국인이 귀국할 때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 해야한다.	88.4	82.7	
18. 에이즈 환자를 격리수용해서 전파를 막아야 한다.	90.1	82.0	